

# 노후 책임지는 '주택연금' 언제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 가입자 수 6만4447명...가입시점 기준 집값 높을수록 연금수령액 ↑



고령화 시대를 맞아 주택연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2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6만4447명을 기록했다. 2007년 처음으로 도입된 주택연금은 2008년 1210명의 가입자를 기록한 뒤 지난해 가입자 6만명을 넘겼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내 집에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연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어느 시점에 가입해야 가장 유리한 것일까. 주택연금은 향후 집값 전망에 따라 가입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고 집값이 추후 오를 것 같다면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집값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수령액이 많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월 연금수령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의 기대연령과 경

제적 상황을 고려해 연금수령 방식을 정해야 한다. 주택연금의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회합방식, 확정회합방식, 사전가입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회합방식 등 총 7가지로 나뉜다. 이 중 가입자의 약 66%가 선택 중인 종신지급방식은 평생동안 매월 고정된 연금수령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그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종신회합방식(가입자의 29% 선택)은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연금수령액을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종신지급방식보다 매달 받게되는 연금수령액이 적다. 한편 최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유한 집이 부부 기준 9억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향후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50대로 낮아지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으로 현실화 될 예정이다.

# '도심 속 시골인심' 광주·전남 직거래장터는 어디?

### aT, 광주·전남 14곳 등 전국 46곳 운영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정례 직거래장터 33곳과 테마형 13곳 등 총 46곳의 신규지원 장터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장터개설과 운영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도심 속 아파트 유휴 부지를 활용해 열고 있는 금요 직거래장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올해 정례 직거래장터 33곳과 테마형 13곳 등 총 46곳의 신규지원 장터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장터개설과 운영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도심 속 아파트 유휴 부지를 활용해 열고 있는 금요 직거래장터. 장터개설과 운영지원에 나선다. 장터개설과 운영지원에 나선다. 장터개설과 운영지원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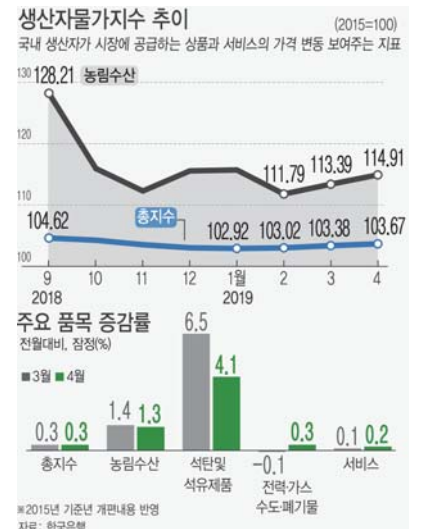
넉넉한 시골인심을 도심 속에서도 맛볼 수 있다. 직거래장터는 지역별로 총 46곳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총 2만8000여명의 생산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총 14곳의 '로컬푸드 직거래장터'가 개설돼 있다. 광주는 광주농협에서 동광주점, 두암점, 매곡점, 문화점 등 4곳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은 광양원에농협, 나주혁신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화순 도곡농협, 목포농협, 영암 산호농협, 순천 로컬푸드 국가정원점, 여수농협 양지점, 우두점, 여천농협 등 10곳에서 로컬푸드를 판매하고 있다. 지역별 로컬푸드 직매장 정보는 aT가 운영하는 '바로정보사이트(www.baroinfo.com)' 공지사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상남 aT 유통이사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중소 생산농가에게는 새로운 판로 기회를 제공하고 도심 속 소비자는 제철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도·농 상생의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축산물·휘발유값 '경중'...생산자물가 3개월째 상승

### 돼지고기·달걀·휘발유 등 생활밀접물가 '들쭉'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석달 연속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세로 휘발유 등 석탄·석유제품 물가가 큰 폭 오른 가운데 돼지고기와 달걀 등 축산물 가격이 들쭉인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103.67(2015=100 기준)로 전월에 비해 0.3% 상승했다.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생산자물가는 통상 한 달 뒤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앞으로 소비자물가도 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다. 생산자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이 크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생산자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배럴당 70.94달러로 전월보다 0% 뛰었다. 품목별로 휘발유(9.9%), 경유

(2.0%) 등을 중심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이 4.1% 상승했다. 지난 2월부터 석달 연속 오름세다. 반면 반도체 D램 가격이 9.9% 떨어지는 등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물가는 0.1% 하락했다. 다만 공산품 전체 물가는 0.3% 올랐다. 농림수산물 중에서는 축산물이 6.5% 올라 나홀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축산물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전월대비 13.5%, 달걀 품목이 39.5% 뛰었다. 불철 행사가격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여파로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달걀 가격은 '부활절 특수' 등의 영향을 받았다. 농산물은 콩고추(-39.7%), 토마토(-14.6%), 오이(-37.8%), 피망(-41.4%)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1% 내려갔다. 수산물도 기타어류가 14.0% 감소하는 등 전월대비 0.2% 하락했다. 서비스 물가도 전월대비 0.2% 오



르며 꿈틀했다. 태백(4.9%), 전세버스(5.7%), 택시(1.3%) 등 운송 물가가 0.8% 올랐고 제과점(1.6%), 한식(0.1%) 등 음식점 및 숙박 물가도 0.3% 상승했다. 부동산은 주거용부동산관리(2.1%) 등을 중심으로 0.2% 하락했다. 특수분류별로 보면 식료품 물가가 전월대비 0.7% 상승해 두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신선식품은 1.7% 하락했다. 에너지는 1.5% 상승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물가는 0.2% 올랐다.

# 국민연금 둘다 받는 부부 30만쌍 첫 돌파...최고액 333만원

### 20% 월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남편과 아내 모두가 연금을 받는 부부가 처음으로 30만쌍을 넘어섰다. 또 이들 가운데 5쌍 중 1쌍은 둘이 합쳐 매월 100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날인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0만7486쌍(61만5000여명)에 달했다. 2014년 15만8142쌍이었던 부부 수급자는 2015년 18만5293쌍, 2016년 22만273쌍, 2017년 27만2656쌍, 지난해 29만7186쌍 등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가입해 기간과 금액 등에 따라 은퇴, 장애, 사망 등이 발생하는 노후에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다. 결혼한 부부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냈다면 생을 다할 때까지 각자 료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가장 연금액이 높은 경우는 월 332만7381원이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가입한 이들 부부는 남편 A(63·남)씨가 2015년 6월까지 27년 6개월간, 부인 B(62·여)씨가 2016년 2월까지 28년2개월 보험료를 납부해 현재 333만원 가까이 노령연

금 혜택을 받고 있다. 전체 수급 부부의 20.4%인 6만 2622쌍은 매월 받는 연금액이 100만원이 넘었으며 1112쌍은 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고 있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부부 수급자가 늘어난 데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461만8201명 가운데 여성은 42.8%인 197만5067명이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9만800명(5.2%) 가량 증가한 수치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